

결전(의) 날에 내게도 승전을 기원하는 문자 메시지가 배달되었다. 뒤편으로는 중국에서 축하 메일이 2통이 날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토고와 경기에서 저도 좋다고 생각했다. 온 국민이 축구에 희망을 걸었을 나라...'라고 답장 문자를 보냈다. 사활이 걸린 듯이 응원열기가 신록 짙은 유월의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데, 무슨 망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친구가 충고를 해준다.

방송이 온통 도배를 하고, 스포츠 황금산업에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지, 다른 한 친구는 '아다시 달맞이꽃 피누나/공 하나에 미쳐 버린 조국 아여! 환장할 시인이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누구든 한마디 거들고 있으니, 월드컵 마수에 걸린 것 같다. 캄보디아의 텃 봉 스님은 경기를 조용히 명상하듯이 봐야 하며, 스님이 흥분하면 관계한 것이라 하셨다. 수행 자원의 말씀이지만, 표면 현상을 다스려서 깨달음이 올까, 또는 스님이 붉은 악마 웃을 입고 응원한다고 풀죽은 서민경제의 기가 살까.

가만히 보면, 모두 잘살려고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잘살고자 하는 욕망, 애국적 물결을 모독하는 것



불자 세상보기

노 귀 남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우리의 6월과 월드컵

이 아니라, 끝없이 부추기고 있는 경쟁과 경쟁심의 모순을 외면하고, 도리어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를 한다.

잘 사는 일과 잘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왜 잘살고 있는 나라가 더 이기려고 불을 켜는가. 명예와 영광과 당당한 승리를 위해 적정했을 상금, 16강 진출 시 1인당 1억, 8강 2억, 4강 3억, 우승은 5억 원,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환산하면 '물결 115억 원의 상금'도 너무 적겠다.

그런데 작은 일에 눈이 어두우면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자부 경쟁하다보면 좋고, 옳고, 맞고... 선호와 시비의 분별을 놓는다. 그러다가 선택의 폭과 관계를 좁혀, 무한히 열려있는 자연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다.

요새 유행하는 '비호감'이란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는, 젊은이들의 취사선택 방법이 얼마나 무지해할 수 있는가. 경쟁, 선악, 시비 논법으로 따지는 일이 극도로 피로해져, 이제 머리가 고도

의 직관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만...

안타깝게도 직관은 편견에서 나오지 않는다. 널리 성찰하는 데서 나온다. 토고와 경기를 하면, 토고의 문화도 보면 좋을 터. 다짜고짜 이겨야 한다는 한마디로 배경과 역사를 묵살한다. 토고 특집방송이라도 내놔야하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눈을 얻었을 것이다.

새로운 인식에 따라 역사는 바뀔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낳았던 군사 독재와 정치적 탄압, 부패와 가난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듯이, 그런 종류의 모순이 우리 분단 속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6·15의 정신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당에 6·25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민족통일대추전에 참가한 안경호 북측 대표단장의 '전쟁' 발언처럼 감당 안 되는 이복을 '비호감이야' 하고 무시할 수도 없고...

원한과 모순이 길지만, 승자와 패자, 호감과 비호감, 이런 경쟁과 이분법의 논리를 뛰어넘는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통이 크기에 드러나는 문제와 아픔과 못남을 배척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포용하면서 살펴본다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해원과 인간애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리라.

불자의 눈

선진국을 규정하는 잣대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님인 자명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보면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자연 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타행, 자비행, 보살행을 굶은 가치로 삼는 불교계의 봉사활동이 분발을 요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05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불자는 1만5528명이다. 개신교 2만7650명, 가톨릭 1만5775명이다. 봉사자 1명의 연간 봉사시간은 불교 33.6시간, 개신교 25.6시간, 가톨릭 31.8시간이다. 1인당 연평균 봉사회수는 불교 9.5회, 개신교 7.1회, 가톨릭 10.5회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수는 불교 810명, 개신교 583명, 가톨릭 955명이다.

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봉사는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반듯하게 완성시켜가는 방편이다. 얻는 즐거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느낀다.

세간 속설에 '종교인이 더 인색하다'는 말이 있다. 사랑, 자비를 입에 달고 살면서 말 따로 몸 따로 라는 질책이다.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라는 것을 실감한다. 감자를 씻을 때는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바깥 문지르면 된다. 서로 부딪쳐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뽀얀 얼굴이 된다.

미국의 대학입시, 회사 취업, 결혼 등에는 봉사활동 실적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격과 실력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상승되고 있다. 문제는 단발성이 아닌 영속성이다. 봉사는 신명날 때 한번 벌이는 축제가 아니다.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은 더욱 아니다. 보시의 으뜸은 무주상보시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나의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고마운 대상은 많은데 다가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할지 머뭇거리기 뿐이다. 교계 지도층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우상(대전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장마철

소 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하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음악은 저분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미국 정부가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구호금 중 16%에 달하는 14억 달러(약1조3500억원)가 고급 휴양지 휴가비, 이혼수수비용, 성친환 수술비용, 스포츠 관람료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급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태평양 건너, '남의 집' 일이지 않겠는가?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태풍 나비의 피해 복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 지역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마산의 경우, 피해 예방 시설물이 설치된 비율이 50%가 넘지 못한다고 한다. 예산 부족이 이유란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자연재해는 차라리 절망이다. 떠날 곳도, 떠날 돈도 없으니 간신히 부처진 집을 매만져 살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겐 예방은 고사하고 피해 수습도 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타탄 한다. 해마다 '상습' 침수구역은 침수되고, '상습' 피해지역은 예외 없이 피해를 입는 이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맛비는 국지성 호우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올해는 제발 '인재(災)였다' '예고된 자연재해였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길 바랄 뿐이다.

■여수령(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인재양성에 총력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인재개발원을 설립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점인데 우리 불자들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소수 빼고는 안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국불교는 기복불교라는 오명, 치마불교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자 가운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불교를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 스님 중에도 공부할 게 없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들 한다.

일은 사람이 한다.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하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특 히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다. 더 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회성으로 그치 지 말고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하연(부다뉴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리강좌는 무료로 해주세요”

조계종이 사이버 불교대학을 개설한다고 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이제 개설한다니 늦은 감은 있지만 포교 방법으로서, 포신도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초 교리강좌는 무료로 서비스했으면 좋겠다. 전법을 위해서 중단에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기존신도들이야 보시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료 교육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사이버'가 대체다. 인터넷을 신도 교육과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범(부다뉴스)

‘일산 향릉사 종단 등록 취소’ 환영

태고종은 최근 무속행위와 관련해 최근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향릉사에 대해 종단 등록을 취소하고 주지 해인의 승적을 박탈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태고종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종단에 등록된 전국 사찰을 재검토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gi(부다뉴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최근 발표된 2005년 종교인구조조사 결과는 불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10년 사이 종교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인구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불교계 내부에서는 포교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다뉴스는 포교전략 수립시에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기간: 2006.6.1~13, 총 참여자: 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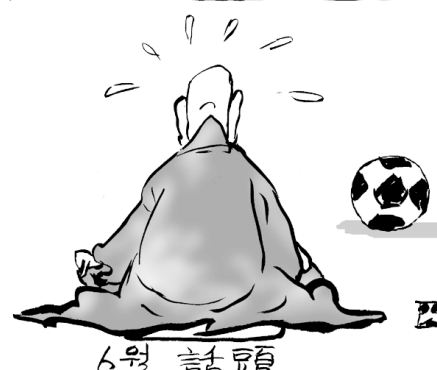
포교 전략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은?

Table with 3 columns: Strategy, Percentage, and Count. Includes items like 'Diverse methods', 'Children/Youth focus', 'Home visits', 'Program development', and 'Senior citizens'.

‘연대’ 민명

심민섭

공은 공이다



6월 話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Section titled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with a large character '命' and text about the importance of the book.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야하며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이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기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